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현황과 전망[1)]

박채순

For the sake of a healthy global economy, the vultures must be grounded.

— Joseph E. Stiglitz & Martin Guzman

1.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개관

지난 7월 30일 이후 아르헨티나가 기술적 디폴트에 빠졌다. 이는 아르헨티나 국가 사회의 많은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디폴트 문제는 내년 2015년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크리스티나 정부는 현재 상황을 '디폴트'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이 디폴트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 견해는 "채무자가 임기가 도래한 채무 상환금(5억3,900만불)을 거래 은행(Bank of New York Mellon)에 기일 전에 송금조치 하였다"는 것으로 디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선언한 전체 디폴트의 93%에 해당한 금액을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조정에 합의하였고, 지금까지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상환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이 글은 그 동안 필자가 쓴 월드코리안 신문(www.worldkorean.net)의 아르헨티나 관련 기사를 일부분 참조하였음.

더구나 현재도 이 조정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의지가 변함이 없으며,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말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예치 한데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 지불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디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2001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도 동료와 함께 기고한 한 칼럼에서 아르헨티나가 지난 7월 30일부터 처한 상황에 대해 "한 국가가 채무에 대해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2)]

조셉 스티글리츠는 덧붙여서 "아르헨티나는 시민들과 채무 구조 조정에 합의한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에사(Griesa) 판사의 판결은 고리 대금 업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국제 금융 시장의 기능을 위협하며, 지급 불능 채무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라 하고 심지어 그는 이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황폐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3)]

이처럼 노벨상 수상자와 전문 학자들의 평가는 벌쳐펀드(vulture fund)[4)]의 부작용을 비판하고 아르헨티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채무 금액 사전 예치, 상환 의사나 외부의 호의적인 평가나 지지 여부와는 별도로, 아르헨티나가 6월 30일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그들 채권자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기술적인 디폴트[5)]에 빠졌고 이로 말미암아 외부의 투자가 대부분 끊겼으며,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해고가 빈번하여,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 진 것이다.

---

2) Joseph E. Stiglitz & Martin Guzman, "Argentina's Griesafault" (Project Syndicate: 2014.8.7)
3) Joseph E. Stiglitz & Martin Guzman, "Argentina's Griesafault"
4) 헤지펀드(hedge fund)를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이트레 채권(fondo Buitres)이라고 주로 사용한다.
5) 2001년의 채무 불이행의 전반적인 디폴트에 비해 이번 아르헨티나 디폴트를 학자들과 매스컴에서 "기술적인 디폴트(Tecnical default)"라고 표현한다.

아르헨티나의《클라린》신문이 기업 경제 컨설턴트 회사인 에코라틴(Ecolatina)의 분석을 인용하여, 금년에 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며, 2009년의 경기 후퇴시보다 경제가 더 급격하게 후퇴하고, 보편화하여 짧은 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 컨설턴트 회사인 아베세브(Abeceb)는 2015년의 농업부분도 국제가격 하락과 경비상승으로 9.7%의 하락을 예상한다는 발표다.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아르헨티나 경제에 관한 대체적인 분석은 금년이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가 집권 한 이래 최악의 상태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는 2015년에도 계속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6)]

이 글에서는 2014년 7월말에 시작되어 연말에 5개월이 된 아르헨티나의 기술적인 디폴트의 발생배경, 디폴트 이후의 아르헨티나와 홀드아웃(hold out)의 다툼, 현황 그리고 향후 아르헨티나 경제와 관련한 디폴트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에 이르는 과정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말 델라 루아(Del La Rua) 대통령의 사임으로 혼돈 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라몬 푸에르타(Ramón Puerta)에 이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Adolfo Rodríguez Saá) 대통령이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날, 상·하 양원합동 총회에서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1천 440억불에 대한 총 채무지불 정지를 선언하여 공식적인 국가 디폴트에 빠졌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지난 7월 30일 아르헨티나는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인 디폴트에 빠진 것이다.

2001년의 전면적인 국가 부도사태 이후 2005년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재임 시와 2010년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실시했던 채무구조 조정에 92.4% 채권자들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 홀드아웃(holdout)인 7.6% 채무 중, 0.45%에 해당하는 헤지펀드 채권자들[7)](NML

6) Clarín, 10.26, “la economía enfrenta su hora más oscuro en la última década”
7) 이들 채권자를 홀드아웃(holdout)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의 속성으로 Vulture fund라 하고

Elliott y Aurelius 등)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권 원리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항소했는데, 2013년 8월 23일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건을 곧 미국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미국 대법원에서 지난 6월 16일 이 건을 아예 다루지 않고, 원심이 확정 되어 아르헨티나가 13억 3천만 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던 것이다.

이 판결 이후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 헤지펀드들이 올리려는 수익이 1600%에 달한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이 재판을 담당한 미 연방 법원의 토마스 그리에사(Thomas Griesa)판사가 아르헨티나로 보아서는 악역을 담당하였고, 홀드아웃 채권자들에게는 충실한 대변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승리한 홀드아웃 채권들이 아르헨티나 정치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가 단순 하지 않은 것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 법원의 판결대로 이들 홀드아웃 채권자들에게 전액 상환할 경우, 2005년과 2010년의 기존 채무조정 시에 명시된 "향후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른 모든 채무자들과의 협상에서 이 채권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이 조정에 합의한 채권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청구할 권리를 준다"는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조항에 의해, 기존 채무 조정에 합의한 1,200억불 상당의 기존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조정 당시 65%를 삭감한 이 채무가 조정 전의 원금과 이제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5,000억불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러한 사태는 그야말로 한 독립국가 경제의 몰락에까지 이르고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채무조정에 든 이들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이트레 채권(Fondo de Buitre)이라고 호칭한다. 이 부이트레는 남미산 독수리 종류로 주로 죽은 고기만을 먹는다고 하여, 이 채권자들이 파산 직전에 있는 국가나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여 소송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앙은행에 있는 미국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구좌에 6월 26일 10억불 가량을 이체했다. 그러나 그레이사 판사가 판결 시에 부여한 조항인 “부이트레 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채무도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지급중지 결정을 하였고, 이 중 5억3천9백만 불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때부터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채무 불이행은 미국 법원과 부이트레에서는 그들이 미국 법률로 확정 받은 채권 13억 3천만 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에 입금되거나 파악이 가능한 아르헨티나 자산에 대해서 은행에 지급중지를 명령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에게 상환금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상환이 지연 된 이 채무의 변제유예 기간이 7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었고, 7월 30일 이후 아르헨티나는 기술적인 디폴트에 빠졌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디폴트 이후의 아르헨티나와 부이트레 채권의 공방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불리하게 확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미국 법원 그레이사 판사와 브레이트 채권자 측에서도 그들의 판결을 고수하고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존 채무 조정 채무자들에게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8월 19일 법원 관할지를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결제 은행을 미국 뉴욕 시티 은행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으로 변경하는 “채무 우회상환 법안(Ley de Pago Soberano de deuda)”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 9월 10일 국회에서 찬성 134표, 반대 99표와 기권 5표로 통과되었고, 11일 공고하여 법제화했다.[8] 또한 9월 9일에는 유엔에 ‘국가채무 재조정 과정을 위한 다국가간의 법적인 제도’에 대한 안을

8) Télam, 2014.9.12., “El Gobierno oficializó la promulgación de la Ley de Pago Soberano de deuda”.

아르헨티나 어느 벽면의 부이트레 채권 반대 광고 (출처: http://www.latercera.com/)

상정시켜 77+중국의 도움으로 찬성124, 반대 11과 41국가의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멈추지 않고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9월 20일 자국 출신의 프란시스코 교황과 부이트레 문제를 협의했고, 22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부이트레와 싸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티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부이트레에 대해 토의하고 전체 유엔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9)]

9월 24일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제 69차 유엔 총회에서 193개 국가의 대표 앞에서 연설하고 미국과 부이트레를 맹비난한 것은 물론이다. 9월 26일에 유엔 제네바 인권 위원회에서도 47개국 중 33개국의 찬성, 5개국 반대와 9개국의 기권으로 통과시켜서, 국가 채무의 재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을, 국제 사회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격으로 부이트레는 9월 29일 그레이사 판사를

9) La Nación, 2014.9.26., “La oficina de derechos humanos de la ONU condenó a los fondos buitre, a pedido de la Argentina”.

통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우회상환법(Ley de Pago Soberano de deuda)을 제정한 것 등을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에 미국 법원의 판결 불복종(Desacato)을 선언했다. 그러나 판사는 부이트레가 요구한 1일 벌금 5만 불에 대한 부과는 수용하지 않았다.

9월 3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존 채무자에게 상환할 1억 6,100만 불을 그들이 결제은행으로 지정한 국책은행 나시온 피데오코미소스(Nación Fideocomisos)에 결제용으로 예치하였다. 이런 조치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까지 그들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10월 6일에는 IMF이사회에서도 유엔에서처럼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는 보도다. 단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이트레 채권이 판결을 통해서 전 채무를 상환하는 데 방해하는 것 등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넣고자 했으나, IMF는 목적은 같았으나 시장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국가 채권에 대한 부이트레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기에 이른다.[10)]

11월 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그레이사 판사가 결정한 9월 29일 미국 법원의 판결 불복종(Desacato)에 대해 상소를 했다.[11)]

정부에서 국회를 통해 성공시킨 법원 관할권 이전과 결제은행 변경을 시도한 채무우회상환법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변경에 동의한 채권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의지와는 다르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대외의 공방 외에 부이트레와의 싸움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는 “조국이냐 부이트레냐(Patria Buitres)”라고 하는 조국과 부이트레 중 택일 하라는 벽보가 대통령 사진과 함께 오랫동안 존재했다. 이는 정부에서 내부 추종자들을 모으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아르헨티나 국민이 상당수 부이트레를 조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10) Clarín, 10.6., “El FMI también propone ir contra los fondos buitre”
11) La Nación, 2014.11.5., “El Gobierno apeló la decisión de Griesa de colocar al país en desacato en Nueva Y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부이트레 재판이 아르헨티나에 불리하게 나지 않았던 시기에 스페인 렙솔과 YPF몰수에 대한 보상 합의와 파리 클럽에 대한 채무 조정 등 국제 금융의 신뢰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경제학자들과 산업, 금융계 등에서는 부이트레 채무를 시급히 조정하여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외자유치를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정부도 아르헨티나가 외부에서 자본 유입이 되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진 외환 보유고를 올리고 정상적인 산업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경제장관과 뜻이 맞지 않아 교체된 파브레가(Juan Carlos Fábrega) 총재의 뒤를 이어 새로 임명된, 중앙은행 알레한드로 바놀리(Alejandro Vanoli)신임 총재가 취임 후 월스트리트 중요은행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 앞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이트레 채권자들에게 채무이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경제장관과 가까운 신임 중앙은행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부이트레와 타협이 불가하다는 대통령과 경제장관의 예전 강경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이트레에 굴복하지 않고 체면을 구기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식이든지 부이트레와의 교섭을 통해서 원만하게 결말을 짓고, 국제 금융기구에 진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티나에 이어 대통령을 꿈꾸는 여당의 유력 주자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loi)는 부이트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진단을 하고,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인 미겔 베인(Miguel Bein)은 아르헨티나가 두 병의 물병만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곤궁함을 견디어 낼 것을 주문한다.

실제로 2014년 9월까지 1년 동안에 환율이 50%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40%에 이르지만 임금과 연금 인상은 30%에 그쳐 실질임금이 10% 떨어졌으나 정부의 인상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각종 산업의 후퇴로 해고가 일반화 되어 어느 때보다도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말에 더러 있었던 슈퍼마켓 강탈 등 사회적인 소요 사태가 우려되

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재집권은 현 정부의 정책 운영 결과에 직결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외적으로 부이트레 문제엔 대한 세계인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해도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의 숙제인 것이다.

현재 6월 16일부터 25개의 새로운 채권자들이 부이트레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 받고자 여기저기에서 "나도(Me too).." 하면서 그레이사 판사를 통해서 소를 제기한 유사한 채무가 65억불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현재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 채권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르헨티나 측 변호사들이 말했다는 《나시온》 지의 보도다.[12)]

4. 디폴트 이후 아르헨티나의 상황

기술적인 디폴트를 당한 아르헨티나는 이 채무를 상환하고 렙솔과 파리 클럽의 채무를 협상하여 국제 금융시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브이트레를 상환하면 그 뒤에 따른 엄청남 파장을 비교하면서,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그레이사 판사 측 그리고 그의 대리인과 무수한 공방을 계속해오고 있다.

크리스티나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 부이트레로 인한 디폴트에 많은 힘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힘을 쓸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이중환율과 수출입 통제에 이어 지난 2월까지 계속되었던 극심한 경제 문제 등 어려움이 중첩된 가운데 크리스티 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폴트와 부이트레 채무의 공방의 선두에 젊은 경제장관 악셀 키실로프(Axel kicillof)가 있다. 그는 2011년부터 정부에 들어와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는데 그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

12) La Nación, 2014.11.8., "Deuda: las nuevas demandas contra la Argentina suman US$ 6500 millones".

학교 경제학부에서 마르크스 이론 등을 강의했던 경제학자였다. 그가 경제부의 고위관료였을 당시 메넴 정부에서 스페인 기업 렙솔에 민영화한 YPF를 2012년 4월16일부터 지분 51%를 환수하였고,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2013년 11월 18일에는 경제부 차관에서 장관에 승진하여 현재에 이르며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워서 대외적으로 크리스티 정부의 정책을 소신껏 실현하고 있다. 그는 경제장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경제를 통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아주 부정적이다.

클라린 보도[13]에 의하면 그가 정부에 관여한 2011년 2월에는 국고보유액이 524억불이었는데 비해 현재는 282억불로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은 35%를 넘었으며, 경기후퇴가 극심해졌고, 생필품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외적으로 강단 있게 디폴트에 대체하는 노력은 호주 브리즈번(Brisbane)에서 마감한 2014년 11월 15-16일의 G-20 정상회의에 크리스티나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최종 공동 코뮤니케에 아르헨티나가 추진해 온 “국가 채무의 구조조정에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행동과 같은 국제적인 작업을 환영 받았고, 차후 이 문제를 각국 재무장관과 국립은행 총재에 다루도록 한다”[14]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국제 사회에 문제 제기에 성공을 하여 정부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매우 고무되었다.[15]

물론 이러한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지만 부이트레 등의 악성 헤지펀드가 국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한 국가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대통령 키르츠네르 당시와 비교하면 국제 환경 등이 많이 변해서 디폴트 상태가 아니어도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13) Clarín, 2014.11.16. “El año de Kicillof: más controles, más poder y malos resultados.
14) Australia 2014 G-20, “G20 Leaders’ Communiqué Brisbane Summit, 15-16 November 2014”
15) Ambito finaciero, 2014. 11.6, "Es un hecho histórico, estamos extremadamente conformes"

재판을 담당한 미 연방 법원의 토마스 그리에사 판사를 비난하는 포스터
(출처: http://www.voanews.com/)

제일 먼저 달러 유입이 어려워 투자감소, 신용공여 제한, 소비감소와 국민총생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통화가치 하락, 경기침체, 회사 도산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다.

통상 아르헨티나는 연말연초의 여름방학 시기에 환율상승, 슈퍼마켓 약탈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크리스티나 정부는 마지막이 될 이 여름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미불 통제를 엄격하게 하여 외부유출을 막고 수요균형을 맞추는 것, 페소화 국채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 지난 7월 시진핑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약속한 바 있는 110억불 상당의 통화스와프협정(SWAP)이 아주 소액에 그치고 있어 이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아직 청산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곡물과 식용유의 판매정리를 통한 미불 확보와 공공성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16]

예를 들어 클라린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IMF 연차 총회에 제출한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성장이 불균형하고 채권자들과 갈등으로

16) Clarín, 2014. 11.9., “Los cinco salvavidas de Cristina para enfrentar un verano caliente”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현재의 경기 후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은 금년 초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6%를 예상하였으나, IMF에서는 2014년에 -1.7%에 이어 2015년에도 -1.5%에 이르며 실업지수는 2014년에 8.8%에 이르고 2015년에 더욱 상승하여 9%에 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최근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티나 정부가 언제 어떻게 부이트레 채무를 정리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 나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국가를 정상적인 괘도에 올릴 수 있는 을 자못 관심거리다. 더욱이 내년 2015년 10월에는 크리스티나를 이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있다.

5. 향후 전망

아르헨티나가 비록 기술적인 디폴트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계경제 전망 또한 어두운 가운데 특히 석유, 금, 구리 등의 광산자원과 농산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를 주로 수출하는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등이 2015년에 디폴트 가능성이 점쳐지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아르헨티나와 같이 곡물 등 원자재 비중이 큰 나라에는 부정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광물자원이 가격회복을 하는 데 12~15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식량자원 가격은 회복주기가 훨씬 빠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과 IMF 그리고 G-20 같은 세계무대에서 아르헨티나는 정부가 처한 부이트레를 원인으로 한 디폴트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일정 부분 세계인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데 성공을 한 듯하다. 그렇다고 국제적인 이해가 아르헨티나의 채무변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국민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17) Clarín, 2014. 10.8., “El FMI dijo que Argentina seguirá en recesión y subirá el desempleo”

G-20의 공동 선언문에는 “이제까지 집단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작업을 환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위임하여 이 안을 처리토록 부탁”한 것이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11월 중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아르헨티나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견지해 온 정통적 정책(políticas heterodoxas)을 벗어나, 우리가 구식 방법이라고 하는, 가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도 있다”고 권하고 그런 경우가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의 대재앙 후에 이 채무를 거부한 후, 평가절하를 허용하고 기본적으로 태환을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아르헨티나 경제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비록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좋았다고 했다. 덧붙여 아르헨티나가 전통적인 처방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18]

폴 크루그먼은 부이트레 채권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부이트레는 헐값에 사서 소송을 통해 수금을 하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미친 짓이다”라 하고, 또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분배가 사회 정의와 함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9]

아르헨티나에서는 6월16일 부이트레 채무에 대해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최종 결정 후에 7월 30의 기술적 디폴트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회의 촉각이 모두 부이트레 채권에 가 있는 현실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한 푼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배 째라 식의 기조가 존재했었으나, 막상 판결 후에는 비록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외자를 유치하여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당위와 그렇기

18) Infobae, 2014.11.14., “Paul Krugman cuestionó el populismo, la emisión desmedida y la medición de la inflación en Argentina”.
19) Télam, 2014.11.17., “Paul Krugman cuestionó duramente el accionar de los fondos buitre conta la Argentina”.

위해서는 디폴트의 원인이 된 부이트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UFO조항 때문에 2014년 말까지는 상환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또한 무릎을 꿇고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이트레를 해결하는 가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또한 부이트레를 해결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도 중요한 테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아르헨티나 대학교수와 경제 전문가들인 호르헤 비냐스(Jorge Viñas) 엘살바도르 경제학부 교수, 마누엘 크루스(Manuel Cruz) 라플라타 대학원 연구원, 후안 미겔 마소트(Juan Miguel Massot) 엘살바도르 대학교 경제과학연구소 소장, 문재순 부에노스 아이레스 경제학부 교수와 솔래다드 마잔스키(Soledad Mayansky) 수출협회 경제연구원 등에게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물었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디폴트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디폴트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부이트레 채무를 정산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홀드아웃 채권에 대해 적절한 상환시기, 홀드아웃 정리 후에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인가와 호전된다면 시기가 언제쯤인가와 크리스티나 정부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디폴트를 해결할 것인가 등이다.

이들은 각 질문에 서면으로 답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주장하는 디폴트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르헤 비냐스 등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상환이 되지 않은 것은 디폴트라고 의견을 냈다. 더욱이 마소트 소장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93%를 제외한 7%는 디폴트 상태였다는 의견을 주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디폴트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부이트레 채무를 정산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에, 마소트 소장은 아르헨티나에 정부의 정책이 신뢰만 회복된다면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침대 밑 자금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비냐스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국제금융시장에 나가기 위해 클럽 파리스와 렙솔 등과의 채무조정을 완료했기에 부이트레를 해결하면 투자의 문이 열릴 것이라면서 정상

적인 상환을 주문했다.

홀드아웃 채권에 대해 적절한 상환 시기는 문재순 교수 등 대부분이 법률적이고 합리적인 시기는 2015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홀드아웃 정리 후에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인가와 호전된다면 시기가 언제쯤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디폴트를 해결하면 정상적인 외자유입이 가능하여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마누엘 크루즈는 3~4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의 셰일가스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더욱 중요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소트 소장은 여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신뢰회복을 주문했다. 문재순 교수는 여기에 정부 당국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첨가했다.

크리스티나 정부는 임기 전에 디폴트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대부분이 2015년 선거를 의식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졸속적인 해결을 경계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국민은 RUFO가 만료되는 2014년 12월 31일을 보낸 후에 2015년 1월부터 부이트레를 해결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이트레의 문제와 관계없이 금년 초에도 아르헨티나 경제가 심한 어려움에 처했고, 부이트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아르헨티나 경제가 바로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다수의 경제 전문가에게 필자가 자문한 결과도 매우 유사하다.

채무 협상과 정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2015년 10월에 크리스티나 대통령을 이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기회복을 위해 외자유치를 서두른다면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브이트레와의 협상을 완료하여 외부에서의 투자 수혈을 받지 않고는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지만, 졸속협상을 통해서 현 상황에서 탈피하고 모든 상환책임을 돌아오는 정권에 돌려버릴 때 아르헨티나와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이트레의

해결이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2001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와 그의 동료 마르틴 구즈만(Martin Guzman)의 견해를 소개한다.

> 오늘날 국제 사회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다. 하나는 그리에사 판사의 판결에 의해 재조정할 수 없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천억 달러의 채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강제할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20]

끝으로 필자도 이 글을 그들이 맺는 글인 “건강한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벌쳐 독수리들은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For the sake of a healthy global economy, the vultures must be grounded)”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끝을 맺는다.

박채순 — 아르헨티나 국립 라플라타 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KF 파견교수

20) Joseph E. Stiglitz & Martin Guzman, “Debeaking the Vultures” (Project Syndicate: 2014.10.1)